

## 이별에 관하여

이번 학기는 '이별'이라는 단어를 깊게 생각할 기회가 많았다.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처한 상황은 그러했다. 다행히도 내 주변에 누가 죽음을 맞거나 남자친구와 헤어졌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이별에 항상 준비가 되어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충분히 많이 했다.

### 1. 가족과의 이별을 준비해야 한다

최근 외할머니의 구순잔치를 위해 시골로 향했다. 친할머니가 창원에, 외할머니가 마산에 살고 계셔서 외할머니 구순잔치를 가기 전 친할머니 댁에 잠시 들리게 되었다. 코로나 때문에 2020년 설날 이후로 처음 본 얼굴이었다. 할머니께서는 파킨슨병에 걸리셨다고 하셨다. 노년층에서는 흔한 병이기에 별 생각 없이 넘겼던 내가 참 한심했다. 할머니께서는 혼자 힘으로는 걷는 것조차 하실 수 없으셨다. 얼굴 근육이 다 굳어서 표정도 없으셨고, 말씀도 제대로 하실 수 없었다.

아빠 쪽 집안은 아이 복이 많지 않아 나와 내 동생, 사촌동생을 제외하고는 어린 사람이 없다시피 한 공간이다. 나와 내 동생도 성인이고 사촌동생도 고등학생이 되었으니 냉정하게 바라보면 성장하는 사람보다는 늙어가는, 더 차갑게 바라보면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만이 가득하다. 나는 창원에 있었던 짧은 4시간동안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아빠, 엄마, 나, 동생만이 존재하는, 그 누구도 물리적 성장을 하지 않는 공간. 그저 죽음으로 가득한 공간에 덩그러니 버려진 느낌이었다. 다소 과하게 뻗어나간 생각일 수 있지만 적어도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창원에서 네 시간을 보낸 뒤 마산의 외할머니 댁으로 향했다. 외할머니의 구순잔치라 모든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할머니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셨다. 분명 2년 전만 해도

나를 잘 챙겨주셨는데 이번 방문에서는 나에 대한 첫 질문이 '누구시냐'는 질문이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름이 뭐냐'는 질문. 그러니까 할머니의 기억 속에는 더 이상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이런 상황들을 예상하고 방문한 것이 아니기에 너무나도 당황스러웠다. 물론 언제까지나 건강하게 지내실 거란 생각을 한 것은 아니지만, 2년만에 이렇게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인해 자주 뵈 수 없었고, 그래서인지 서서히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을 겪지 못한 것 같다.

## 2. 남자친구와의 이별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4월달은 남자친구 L군과 지독히도 싸워대던 한 달이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지쳐가던 순간에 결국 나는 먼저 L군에게 이별을 고했다. 다소 우발적인 이별이었고, 나도 상대도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별을 맞이했다. 프로필 사진에서 우리의 사진이 내려가고, SNS에서 서로의 흔적을 더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헤어지는 그 순간부터 내 방에 있는 모든 선물들은 다 자리차지만 하는 무의미한 것들이 되어버리고, 사랑과 정성을 담은 손편지는 그냥 종이조각이가 되어버렸다. 그 모든게 30분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스스로가 한심하지만, 내가 뱉은 말을 내가 감당하지 못했다. 흔히 말하는 새벽감성에 젖어 전화를 걸고, 다음 날 아침에 다시 만나 맑은 정신으로 대화를 해보기로 결정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관계를 방해하던 문제들을 해결한 상태로 현재는 원만하게 잘 지내는 중이다. 그 날로 돌아간다면 절대 헤어지자는 말을 다시 뱉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도, 다시는 감정에 휩쓸려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는 결심도 한 상태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별에 대한 대책을 항상 세워 뒀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딱 하룻밤의 이별이었음에도 가끔 나를 괴롭히는 공황발작 증상이 찾아와서 밤새 숨을 쉬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 남자친구와 헤어졌을 때도 딱 이러했다. 물론 그 쪽은 상황이 좀 다르긴 했다. 이성 문제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고, 헤어진 뒤에 나는 한 달 가까이 잠

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밥도 먹지 못해 한 달 동안 7kg가량 살이 빠지기도 했다. 연인과의 이별이 어떻게 대비가 되어있겠냐마는, 적어도 이별을 한 뒤에 내가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야 할 것 같았다.

그 와중에 남자친구가 군대를 간 뒤 그 생각이 더욱 깊어졌다. 연인과의 정서적 이별만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물리적인 이별 역시도 상당히 고통스러웠다. 물론 입대 12일차인 현재는 완벽히 회복을 마치고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잘 살고 있으나, 입대 첫 날과 이튿날은 당분간 한참은 보지도, 연락하지도 못한다는 생각에 또 공황 증상이 찾아와서 많이 고생했다.

### 3. 이별은 서서히, 그리고 비밀스럽게 준비하자

이번 학기를 보내며 '이별은 서서히, 그리고 비밀스럽게 준비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타인에게 '내가 당신과의 이별을 준비하고 있어요'라는 말을 굳이 꺼낼 이유는 없다. 인생은 혼자 와서 혼자 간다고 하지 않는가. 결국엔 나 혼자서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주변 사람들도 잘 챙길 수 있는 법이다. 언젠가는 우리 부모님과도, 우리 집 강아지와도, 나의 하나뿐인 동생과도, 남자친구와도(물론 꼭 결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친구들과 과도 이별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일련의 경험들을 통해 내가 굉장히 자립심이 약하고,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 너무 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나는 이제 모든 것들과의 이별을 차근차근 준비할 것이다. 그 준비가 사람에 따라 몇십 년 짜리가 될 수도 있고, 며칠 짜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내가 언젠가 조금 더 단단한 어른이 되었을 때 이 글을 다시 읽어본다면 스물 셋의 내가 참 귀여웠구나, 하고 웃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